

파업노동자 구타 · 성적희롱

진성전자 직장폐쇄후 이틀에 한번꼴 몰려와

【인천=이용수 기자】 파업농성중인 여성노동자들을 관리자들이 구타하고 성적희롱까지 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인천의 (주)진성전자(대표 최재익·북구 산곡동 428-14)노조(위원장 윤화심)는 지난달 8일 회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농성에 들어갔는데 회사는 5월12일 직장을 폐쇄하고, 관리자들이 밤에 술을 먹고 찾아와 농성노동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팽개치고 목을 졸

라 실신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관리자들은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15~6명씩 폐를 지어 몰려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죽지만 않게 목을 조르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떤 관리자는 여성노동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가슴을 짓밟기도 했다.

이들중 폭행에 적극적인 자들은 노무관리자 장운재 개발과주임 김창운 그리고 박병천 최자홍씨 등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상무인 심상학(55)씨는 작년 8월까지 풍산금속에서 노무이사로 있다가 올해초 진성전자로 옮겨온 이후 평소에도 노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 직장폐쇄 이후엔 위원장 윤씨를 세워놓고 “화냥년” 등의 욕설과 “너 빨갱이 공산당이 지, 작살내 버리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한다.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직장에 서 회롱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타락한 여성들만이 회롱당한다는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있는 상태다. 그러면 과연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영국노총(BTUC)과 말레이시아노총(MTUC)은 제도권노조로서 이에 대처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노총은 지난해 UN에서 3가지 유형의 성적희롱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유혹; 접촉, 원치않는 식사 초대, 성적언어 도발

▲적대행위; 나체사진 전시, 지나친 성적 농담

▲학취; 고용·승진권한을 이용한 회롱
말레이시아노총(MTUC)도 직장에서의 성적희롱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노총의 여성부장은 “성적희롱이 직장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합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훈련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자산업과

공공부문에 서 성적희롱의 빈도가 높은 가운데 노총은 단체협약에 성적희롱 금지조항을 삽입해 가끔 각 노조에 권고하고 있다.

직장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 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또한 노총은 성적학대를 받는 여성들을 돕는 상담기관을 결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시아국가에서의 이러한 운동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말레이시아노총의 여성부장도 “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성적희롱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 가청이 파탄되거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어려움을 실토했다.

성적학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졸음·우울증·두통·방광염·소화불량·구역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학대에 대해 상차별금지법(1975년 제정) 1조 1항에 근거해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주가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

을 취하고 그 행동이 상차별금지법의 해당조항에 저촉되면,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학대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성차별에 따른 보상금 평균액수는 평균 4천파운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체협약·법률적 제재만으로 성적학대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학대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지위를 성적대상이나 아니라 완전히 동등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노 90. 3. 30

정기구독 (02) 358-1438